



미국 신용등급 하락과 금융시장 현황

최 원 선임연구원

- 국제 신용평가사인 S&P가 2011년 8월 5일 미국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함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주식시장이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는 등 변동성이 커짐.
 - 세계 주요국들의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낸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KOSPI 지수가 8월 1일 2,712에서 8월 9일 1,801까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도 8월 4일 1,061.7원/달러에서 8월 9일 1,088.1원/달러까지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됨.
- 미국 FOMC는 8월 9일 회의를 통해 연방기금 금리의 목표범위를 2013년 중반까지 0~0.25%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FOMC의 일정기간 정책금리 동결과 추가 경기부양책 시행 가능성 등이 금융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8월 10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완화되고 주가가 반등함.
 -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FOMC의 회의 내용과 관련하여 미국 경제의 하방위험이 이전보다 증가한 만큼 미국 등 주요국의 실물경제 동향과 정책대응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힘.
- 우리나라 정부는 8월 9일과 10일 경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잇달아 개최하여 2008년 9월 리만사태와의 비교를 통해 외화유동성을 점검하고, 동시에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함.
 - 정부는 2008년 9월 리만사태 때와는 달리 지불능력이 충분한 정부부문 외채가 증가하고, 단기외채비중을 중심으로 한 건전성 지표가 개선되는 등 우리나라 외채구조는 안정적이라고 평가함.
 - 국내 외화자금시장은 스왑마진, 가산금리, CDS프리미엄 등 주요 외화유동성 지표를 2008년 9월 리만사태와 비교할 때도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정부는 금융시장 변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중요하며,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불안을 야기하는 투기세력 및 교란요인에 대하여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시장 매수기반을 확충하는 등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함.

■ 한편, 프랑스 신용등급 하락 위험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장 불안심리가 확대되면서 8월 11일 미국·유럽 증시가 다시 한 번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남.

- 실제로 프랑스 신용등급 하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요국들의 금융시장이 급변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며, 불안심리 확대에 의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짐만큼 이를 예측하기는 더욱 어려워짐.

〈그림 1〉 2008년 9월 리만사태와 현재 비교

(단위: 억 불, %)

구분	2008년 9월 말	2011년 3월 말
외환보유액	2,397	2,986
총외채	3,651	3,819
단기외채	1,896	1,467
단기외채비중	51.9	37.5
단기외채/외환보유액	79.1	49.1

주: 2011년 7월 말 외환보유액은 3,110억 불을 기록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 결과 등, 한은, 8/10)